

질곡의 생을 숙명으로 살아가는 여성 4세대, 지독하게 사실적인 또 한 편의 전설

《살아남은 전설》(전2권) 장혜영 지음 | 실전문학사 | 각권 340쪽내외 | 값각권 9,000원



미로迷路는 미혹美感의 길이다. 막다른 길에 부딪힌다 해도 낭패를 느낄 일은 없다. 단견에 대한 성찰을 얻었으니 되짚어 갈림길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조선족 문단에서 20여 개의 문학상을 받은 중국 동포작가의 리더 장혜영(48) 씨가 한 편의 미로 같은 장편소설 《살아남은 전설》(전2권)을 펴냈다. 무시로 넘나드는 현재와 과거, 인물들의 교차 진술, 그리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인암, 자매봉, 떡나무골 전설은 미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거실의 커다란 공간에서 유난히 쟁쟁한 전화벨 소리가 열린 수면의 기슭을 배회하는 혜정을 집요하게 불렀다”가 입구이며, “과부촌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두텁게 막히고 있었다”는 출구다. 그러나 두 문장 사이에 난 미혹의 길은 독자에게 단견의 성찰이 아

닌, 소설의 이해를 풍요롭게 한다.

“문학활동을 위해 개인 신분으로 2000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던 만큼 그해 중순에 원고집필을 시작해 석 달 만에 초고를 탈고했지요. 과속이 아니냐고 오해를 살 만한데, 오래전 구상을 마쳐 둔 소설이었습니니다. 집필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소설을 퇴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서에 맞게 문장과 어휘를 손볼까 싶었는데 출판사측에서 만류하더군요.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읽는 맛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살아남은 전설》은 주인공 동혜정을 기점으로 외할머니 허말순과 시어머니 공귀덕, 그리고 딸 은주에 이르는 4세대 여성을 적나라하게 해부한다. 유교전통 속에 억압과 핍박을 받고도 순응해야 했던 이가

허말순과 공귀덕이라면, 그들의 그늘에 가려 남편을 사별한 뒤 쉽게 재가를 생각지 못하는 이는 동혜정이다. 그러나 은주에 이르면 전통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아버지 뺄 되는 재벌 백민우와의 일탈을 서슴없이 시도한다. 소설은 출판사 편집부장 동혜정이 대학교수 김인호와 함께 조선족의 전설을 수집하는 여정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소설읽기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장치이기도 한데, 소설에서 내보이는 전설은 4세대 여성 삶의 주요한 상징이다.

“시대가 제시하는 가치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의悲愴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과거 여성들이 유교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오늘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죠. 은주를 조금쯤 과장되게 그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날렵하게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은주 역시 자본과 권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종속된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우월하다 말할 수 없으며, 또 그것들이 단절된 채 독립적으로 나타난 표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설 속에서 현실을 버터내는 여성들의 비명소리는 소란스럽다. 허말순의 남편 김병삼은 독립군 처남을 밀고해 제 잇속을 채우며, 독립군에게 김병삼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자 시아버지 되는 이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허말순을 겁탈한다. 공귀덕 역시 바람둥이 남편 덕으로 첩실의 해산을 돕는 수치를 겪는다. 세상에 모르는 이 없건만 시어머니 되는 이

....“시대가 제시하는 가치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의悲意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과거 여성들이 유교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오늘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죠....은주를 조금쯤 과장되게 그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날렵하게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은주 역시 자본과 권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종속된 인물일 뿐입니다....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우월하다 말할 수 없으며....또 그것들이 단절된 채 독립적으로 나타난 표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의 말은 “아버지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잖니. 네가 참아야지 어찌겠니”라는 속 없는 말뿐이다. 동혜정 역시 마찬가지다. 김인호에게 애절한 정을 느끼나, 혼란스런 시대적 가치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목청 없는 활자임에도 소란스럽다는 것은 작가의 묘사가 그만큼 탁월하다는 증거다.

“오래 전부터 여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청상이셨어요. 재가 하지 못하고 홀로 사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질곡의 삶을 사는 여성들에 대해 천착해 보고 싶었습니다. 유기체 속에만 의미를 국한하지 않는 전설과 함께 여성의 삶을 병행해 얘기해 본다면 얼마간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암 전설에서 여인의 등짐 속에 든 것이 이불도 족보도 아닌,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위라고 단정하는 동혜정을 보아 알 수 있듯, 전설은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살아남는다. 그러나 그러한 전설이 소설 속 여성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처럼, 시대적 가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것에게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유기체 속에만 의미를 국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대적 가치 역시 하나의 ‘전설’이다. ‘살아남은 전설’이란 제목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장혜영은 역사소설의 일가를 세운 역량 있는 조선족 작가다. 단편 〈하이네와 앵앵〉으로 중국문단에 등단한 뒤, 장편소설 《희망탑》, 《홍수와 악마》, 《여자의 문》, 소설집 《하늘과 땅과 바다》 등을 출간, 화려한 조명을 받아온 그가 조선족 사회에서 문학활동을 접고 한국으로 옮겨온 데는 조선족 사회가 안고 있는 한글문학의 위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조선족 사회에서 입신이란 중국사회로의 편입을 의미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문학을 읽으며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갑니다. 우리 글, 우리 문학은 나이든 사람이나 즐겨 쓰고 또 겨우나마 찾아 읽는 형편이지요. 누구 하나 보이주지 않는 곳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한국에서 제 작품이 좋은 평가를 얻게 된다면 조선족문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가는 내년쯤 장편 《피의 나라》와 《태양은 산 너머에 있다》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역사소설로 《살아남은 전설》과 같은 축에 놓인 것이 《피의 나라》라면, 《태양은 산 너머에 있다》는 철학적 사유가 담긴 새로운 형식실험을 시도한 소설이다. 한편 《피의 나라》는 세 권 분량의 장편이라는데, 4년도 채 안 되는 한국생활 가운데 그가 집필한 책은 권수로 헤아

려 6권이든다. 거처도 없이 더부살이를 하며 쓴 소설이기에 자신의 문장 하나 하나가 외로움을 달래는 노래고 희망이었다. 게으른 손품을 과작寡作이라 치하하는 작가가 있다면 혹독하리만치 담금질하는 그의 근성 아래 생산된 소설들을 예의 주시할 일이다.

장혜영 씨는 모국어의 읽는 맛을 잘 알고 있는 작가다. 리듬과 운율을 타고 단번에 술술 읽히는 문장도 소설 읽기를 즐겁게 하지만, ‘게바르다(지저분하게 바르다)’, ‘곤두빨다(멀리 내빨다)’, ‘모리다(되새김질하다)’, ‘칼탕치다(칼로 토막치거나 다지다)’ 등 잊혀진 순우리말을 읽는 맛 또한 새롭다. 전설만을 따로 두고 읽어도 재미있고 낯선 조선족 사회의 한 단면도 볼 수 있는, 소설의 미덕을 두루 갖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아무쪼록 손풍에 돛단 듯 책이 잘 팔려 따뜻한 한 칸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감냥껏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해 본다. 따뜻한 그의 한 칸 작업실이 바로 한국문학과 함께 조선족문학의 자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공간’ 이리라.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